

신년사

허공에 짐을 짊어지듯 처음도 끝도 없는 무한한 시간의 흐름에 구획을 정하는 기점들, 그 가운데 가장 자연스럽게 분명한 기점인 한 해가 바뀌었다.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기점들을 통해 부처를 이루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우리의 영원한 서원을 구체적 상황에 맞춰 조율하여, 공허한 관념성에 매달리는 나태를 벗고 새롭게 펼쳐 일어서려는 각오를 다진다.

무인년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 앞에 놓인 현실은 IMF 시대라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온 국민이 분노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때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큰 지향을 향해 나아가는 불

굴의 힘으로 비탄과 좌절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런 자세에 설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조그만 시련이요, 미래에 있을 영광에 바쳐질 빛나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눈앞의 터무니없는 과보를 초래한 잘못된 업이 있었다면, 일제 30년의 지배와 동족상잔의 폐허 위에서 찬란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뜨거운 동력도 우리에겐

선행적인 요인이 있다. 우선은 당면한 정부 당국부터 당면한 어려움을 은폐함 없이 솔직하게 국민 앞에 드러낼 것이며, 국민들도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상황은 심각하며, 혹 당장의 국가 부도는 면할지 몰라도 외국의 자본들은 우리의 위기를 빌미로 자

잘못은 바로 올바른 청산이 없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우리 국민의 허나심을 막는 감동요소로 드러나 우리의 한참 정진을 위해서 잡아끌고 왔던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한다면, 이는 다시 지울 수 없는 업이 되어 앞날에 더욱 큰 어두움을 드리울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금 금전과 물질만을 숭상하

모든 국민이 이번의 어려움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큰 희망에 함께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이 지닌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의 해결에서부터 분단상황이라는 민족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하는 쪽으로, 경제문제에 매몰되었던 단계 벗어나 전통과 현실을 조화시킨 참다운 문화를 이룩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의 성급했던 자만심과, 내부적인 모순을 소홀히 다룬 업이 잠시 그 과정을 뒤로 잡아끄는 힘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던 그 업들을 청산하고, 순조로운 역사의 흐름에 온 국민의 힘이 모아 지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온 국민을 커다란 서원의 힘으로 움직이게 함에 다름 아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괴로움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 있다. 그것의 해결이 불국토 건설의 큰 서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인년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이다.

한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 나아가야 큰 역사적 흐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아래서 이번의 어려움을 대치하며, 인과를 바르게 가리는 눈을 떠 한 번의 사태로 모든 것을 무로 돌리려는 허무주의적 관점을 극복하는데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출발에는 당연히 모든 국민이 함께해야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이 청소년 다음 우리 경제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안팎의 위협에 대처하여 장기간의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 하기에 허상에 매달린 당장의 안심보다는 밑바닥을 본 뒤에 다시금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이 일치된 힘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청산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 최근사회의 가장 큰

는 사고를 증폭시키는 것을 방지한다거나, 계층간의 갈등을 외면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라는 식은 당연히 배제해야 하지만, 이상적인 미래상에 비추어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모순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청산작업이 제시되어, 거기에 모든 국민이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아가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사회 구현하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해보다도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아 나아가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천만 불자가 앞장서서 수행정진하고 요역중생의 보살행을 실천할 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미래

“일체중생에 사랑 회향하는 해”

유정, 무정의 모든 존재가 중중무중(重重無盡)의 인연 속에 있음을 알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며 일체중생에게 사랑을 회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인년 한해가 그 어느 세

는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7천만 동포 모두에게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항상하기를 축원하며,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나와 남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보성 (태고종 종정)



합니다. 그리고 착합니다. 그 청정하고 착한 심성이 온갖 더러움에 이끌리고 나쁜 버릇에 혼신이 되어 그 깨끗함과 선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을 참회하고 잘못된 의식과 행동과 버릇을 과감히 버려서

“착하고 어질면 밝은 세계 이룩”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전개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착하고 어질면 밝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어질지 못하면 어둡고 사나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청정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세계는 보다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며 그러한 사회와 세계가 바로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불국정도인 것입니다.

도용 (천태종 종정)



도록 힘써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노력으로 바르게 살 것을 교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도와 정법으로 살아감으로써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正意)로운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인과법 삶의 실천원리 삼자”

새해에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짚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 부도덕과 부조리, 무질서와 비리, 이기, 탐욕과 범죄 등의 먹구름을 없애버리고 맑고 밝으며 모순 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

또 새해에는 화합정신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화합하는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각해 (진각종 총인)



(天眞面目) 비유이요/육자진언(六字真言) 삼밀수행(三密修行)은 그 빛을 더하니/경동한 성품자리 비로법신(毘盧法身)의 정토(淨土)로다 무명이 난무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참다운 진리이며 바른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참회와 자비로부터

“참회와 자비로 지혜로운 삶을”

지혜가 있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요 / 진리를 아는 자는 자성(自性)을 깨달은 자요 / 자성을 깨달은 자는 본심(本心)이 밝은 자니라 / 윤회의 유정세계(有情世界) 참회로써 장엄(莊嚴)하니 / 대원(大圓)의 밝은 거울 천진면목

시작됩니다. 현실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행의 법문으로 삼아야 하며 부처님의 자비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항상 새겨가져 심인(心印)의 맑은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만평

박구원



힘들겠지만 함께 극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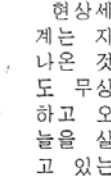
해수 (대한법회종 종정)



큰 거울 앞엔 좋고 나쁨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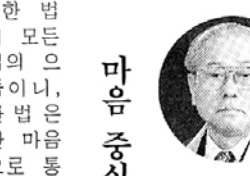


세상 남녀노소 모두 형제자매



반목음을 화해로 공평을 풍요로

해안 (보문종 종정)



마음 중심잡고 진리 놓지말길

록정 (총지종 종령)



사방 더운 바람 부니 불을 불것

일공 (원용종 종정)



망의 우리 가슴이 움직이는 곳에 이 미 양기가 생기고 사방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p>대한불교조계종 제 2교구 본사</p> <h3>용 주 사</h3> <p>주 지 정 락 총 무 심 경 기 획 성 종 교 무 성 무 재 무 성 직</p> <p>▶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 TEL : 34-0040,32-5347 FAX : 34-2818</p>	<p>대한불교조계종 제 3교구 본사</p> <h3>설악산 신 홍 사</h3> <p>회 주 무 산 오 현 주 지 김 도 후</p> <p>▶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TEL : 0392-636-7044/7393</p>	<p>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 본사</p> <h3>월 정 사</h3> <p>조 실 비 룡 회 주 인 허 주 지 현 해</p> <p>대 중 일 동</p> <p>▶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TEL : 0374-32-6661~2, 4~5</p>	<p>대한불교조계종 제 5교구 본사</p> <h3>속리산 법 주 사</h3> <p>주 지 혜 광 · 중 산 부 주 지 무 상 총 무 무 운 성 재 무 현 장 교 무 현 우 사 회 석 담 포 교 정 송 호 법 정 황</p> <p>대 중 일 동</p> <p>▶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사무실 : 0433-43-3615, 8655 F A X : 0433-43-3620 원주실 : 0433-43-4755</p>	<p>대한불교조계종 제 7교구 본사</p> <h3>덕숭총림 수 덕 사</h3> <p>방 장 원 담 주 지 법 장</p> <p>대 중 일 동</p> <p>▶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TEL : 0458-37-6565 FAX : 0458-37-0072</p>
--	---	--	--	--